

'시대의 섹스심볼' 로버트 레드포드 타계

감독, 제작자로도 성공, 선댄스영화제로 독립영화 키워

할리우드의 전설 로버트 레드포드(사친)가 향년 89세로 별세했다.

레드포드의 홍보 담당인 신디 버거는 성명을 통해 배우가 16일 유타 산악지대 선댄스 자택에서 가족들의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레드포드는 1970년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 뉴 할리우드와 상업 영화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했다. 이후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거머쥔 감독이자 제작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독립 영화의 발판이 된 선댄스 영화제를 공동 설립해 인디 영화의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본명은 찰스 로버트 레드포드로 1936년 LA에서 태어난 그는 콜로라도대학에서 퇴학당한 뒤 드라마 예술아카데미에서 연기를 공부했다. 1962년 TV 드라마 '찰리 폰트의 목소리'로 에미상 후보에 올랐고, 1963년 브로드웨이 연극 '맨발로 공원' 주연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1965년 '인



사이드 페이지 클로버'에서 나탈리 우드와 호흡을 맞추며 영화계에 확실히 발을 디뎠다.

그의 영화 경력은 '추적' (1966), '맨발로 공원' (1967) 영화관을 거쳐 1969년 '내일을 향해 쏴라'로 비약적 전환점을 맞았다. 폴 뉴먼과 함께 출연한 이 작품은 아카데미 후보 7개 부문에 오르며 큰 성공을 거뒀다. 이어 1970년대에 '예레미야 존슨' (1972),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호흡을 맞춘 '우리들의 이야기' (1973), 다시 뉴먼과 함께한 '스팅' (1973), '위대한 개츠비' (1974), '콘돌의 3일' (1975), 더스틴 호프먼과 함께한 '모든 대통령의 사람들' (1976) 등 명작을 남겼다.

1970년대 후반 잠시 연기 활동을 접은 그는 감독으로 변신해 1980년 '보통 사람들'을 연출,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이후 '내추럴' (1984), '아웃 오브 아프리카' (1985), '밀라그로 빈필드 전쟁' (1988), '흐르는 강물처럼' (1992), '퀴즈 쇼' (1994), '말을 아는 남자' (1998) 등을 연출·출연하며 입지를 다졌다. 1990년대에는 상업영화

'은밀한 유혹' (1993)으로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레드포드가 세운 선댄스 영화제는 1980년대 이후 인디 영화의 성지로 자리 잡았다. 스티븐 소더버그, 쿠엔틴 타란티노, 로버트 로드리게스, 케빈 스미스를 비롯해 '저수지의 개들', '블레어 윗치', '도니 다코', '후르트베일 역', '코다' 등 수많은 영화가 이 무대에서 출발했다.

2000년대 이후 그는 감독·제작에 주력하며, 2013년 '올이즈 로스트'에서의 연기로 호평을 받았다. 2014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했고, 2018년 '올드 맨 앤 더 건'을 끝으로 연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2002년 아카데미 특별공로상, 2010년 프랑스 레지옹 도뇌르 훈장, 2016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수훈했다. 또한 2017년 베니스 영화제 평생공로상, 2019년 세자르 특별공로상도 받았다.

레드포드는 두 차례 결혼했다. 1958년부터 1985년까지 역사학자 톨라 반 와게벤키의 사이에서 네 명의 자녀를 뒀으며, 2009년에는 예술가 시빌 자카르스와 재혼했다.

저예산 '더 피트' 드라마 작품상 기염

에미상 시상식, 미니시리즈 '소년의 시간' 감독상 등 석권

방송계 최고 권위의 제7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이 14일 LA 피콧극장에서 열렸다. 올해는 HBO 맥스의 의학 드라마 '더 피트',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 (Adolescence), 애플TV+ 코미디 드라마 '더 스튜디오'가 주요 부문을 휩쓸며 주목을 받았다.

'더 피트'는 드라마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거머쥐었고, 주연을 맡은 배우 노아 와일리가 남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와일리는 1990년대 인기 드라마 'ER' 로 다섯 차례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 못했으며, 이번이 첫 에미상 수상이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깐박하게 담아낸 이 작품은 여우조연상과 크리에이티브 아츠 부문을 포함해 총 5관왕에 올랐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저예산 드라마가 일으킨 깜짝 센세이션"이라고 평했다.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13세 소년을 다룬 '소년의 시간'이 가져갔다. 이 작품은 감독상·각본상·남우주연상·남우조연상·여우조연상까지 휩쓸며 6개 주요 부문을 석권했고, 크리에이티브 아츠 부문을 포함해 총 8관왕을 기록했다. 특히 남우조연상을 받은 15세 영국 배우 오언 쿠퍼는 에미상 사상 최연소 남자 연기상 수상

자로 기록됐다. 그는 "3년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감격을 전했다.

코미디 부문에서는 '더 스튜디오'가 작품상과 함께 13관왕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이는 지난해 '더 베어'가 세운 11회 수상 기록을 넘어서는 코미디 부문 한 시즌 최다 수상이다. 제작·연출·각본·연기까지 맡은 제스 로건은 감독상·남우주연상·각본상·작품상 등 4관왕을 기록했다.

최다 후보(27개 부문)로 주목받았던 '세브란스: 단절' 시즌 2는 작품상을 놓쳤지만, 여우주연상(브리트 로어)과 남우조연상(트러벨 킬먼)을 비롯해 총 8개 상을 수상했다. 킬먼은 드라마 시리즈 부문 흑인 배우 최초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74세의 진 스마트는 '나의 직장상사는 코미디언'으로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네 번째 수상하며 이 부문 최고령 수상 기록을 다시 썼다. 같은 작품의 한나 아인바인더는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수상 소감에서 ICE를 향해 욕설과 함께 "팔레스타인에 해방을!"을 외쳐 화제를 모았다.

종영을 앞둔 CBS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는 토크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진행자인

콜베어와 제작진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환호했다.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농담 탓에 방송사가 콜베어를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던 만큼, 이번 수상은 더욱 주목을 끌었다.

1594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3에 있습니다)

3	4		9	8
5		6		4 9
8		4	5	7
2	6	5		
8		9		1 7
5 7		8		6
	5			6 3
2		5	3	
	1	4	8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칭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